

보통문에서 바라보는 평양의 제일경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평양의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에 이채로운 경관이 펼쳐져 뜻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고색창연한 맛이 첫눈에 안겨오는 보통강과 그옆에 우뚝 솟아 빛을 뿌리는 현대 문명의 별천지 경루동!

뚜렷한 대조를 이루면서도 서로 독특한 조화를 이루는 두 모습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평양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욱더 젊어지고 아름다워지는 평양의 새 모습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

천리마거리와 광광거리, 만수대거리, 경루동이 시작되는 교차점에 자리잡고 있는 보통문은 6세기중엽 고구려가 평양성을 쌓을 때 세워졌고 1473년에 고쳐지은 것으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성문 유적들 가운데서 가장 오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갔어도 화강석을 다듬어 쌓은 축대와 무지개문길,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이루어진 문루, 날아갈 듯 추너를 처든 합각지붕을 떠받든 배부른 기둥들은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건축술과 세련된 기교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오늘도 보통문을 찾는 사람들은 먼 옛날 스승이 제자가 지은 보통문을 보고 탄복했다는 일화며 임진조국전쟁 시기 군사들과 인민들이 보통문으로 돌입하여 적략자들을 쳐부신 투쟁이야기 등을 전해들으며 민족의 빛이 살아숨쉬는 평양의 역사를 긍지높이 안아보곤 한다. 인류문명의 시원이 열리고

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고 쇠잔해가지만 평양은 세월이 흐를수록 날이 젊어지고 아름다워지고 있다. 평양이야말로 세계 최장수도시이면서도 날로 부흥하는 청춘도시라고 불러 마땅하다.》

울은 말이다.

역사의 증견자인 보통문에는 단지 흘러간 세월의 자취만 비껴있지 않다.

이끼푸른 보통문의 문루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면 웅장화려하게 천지개벽된 평양,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평양의 모습에 절로 놀라움과 찬란이 터져나온다.

보통문을 축으로 즐비하게 뻗어간 천리마거리와 광광거리, 만수대거리를 비롯한 사회주의선경거리들과 독특한 건축미를 자랑하는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들...

보통강의 맑은 물결에 실린 꽃배들이며 조각, 낚시터, 인민들이 즐겨 찾는 보통강유원지의 곳곳마다에서 울려나오는 희열과 랑만에 넘친 웃음소리, 노래소리, 돌이켜보면 해방전까지만

해도 보통문앞 토성랑일대는 계곡지같은 오막살이집들만이 속박하게 들어앉아있던 빈민굴지역이었다. 게다가 한껏만 비가 와도 보통강물이 넘어나 모든것을 휩쓸어가곤 했었다.

지난날 원한과 한숨, 고통과 피눈물만이 고였던 이곳에 오늘엔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끝없이 넘쳐나고 있거니 언제부러였던가, 토성랑의 새 력사가 시작되었은...

그날은 주제35(1946)년 5월 21일이었다.

물란리로 고통과 불행만을 안겨주던 보통강을 인민의 웃음꽃 피어나는 락원의 강으로 전변시켜주시려 보통강개수공사를 발기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이 날 몸소 공사현장에 나오시어 첫삽을 뜨시었다.

나라없던 그 세월 그 누가 토성랑사람들의 가슴에 서린 원한을 알아주려 했고 누가 감히 자연의 무서운 횡포를 길들이는 기적을 창조할 수 있다고 상상이나 했으랴.

진정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며 보통문대에서 전변의 새 력사가 펼쳐지기 시작하였다.

준엄한 전화의 불길중에서 토성랑사람들의 원한이 스며있는 보통문일대를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며 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보통문의 유아한 모습이 현대적건축물들과 조화를 이루어 한눈에 안겨오게 보통문을 중심축으로 하여 새 거리들을 일떠세우도록 평양시복구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 주신 위대한 수령님.

그 웅대한 구상이 빛나는 현실로 펼쳐진 때와 잠초만이 무성하던 보통강반에 불과 반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천리마거리가 기적과 같이 솟아나고 봉화거리, 붉은 거리를 비롯한 아름답고 웅장한 거리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사랑의 력사를 서사적 화폭으로 펼쳐보이고 있다.

보통강반에 자리잡은 현대적인 종합체육관인 평양체육관과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훌륭히 구현하고 있는 인민문화궁전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락원을 잡아 주시고 설계와 시공에서 나서서 문제들을 세심히 가르쳐 주시였을뿐 아니라 건물이름을 《평양체육관》, 《인민문화궁전》이라고 지어 주신 뜻깊은 사연을 전하고 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수도건설구상을 받들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보통문일대를 인민의 웃음소리, 노래소리 더 높이 울려 퍼지는 행복의 락원으로 꾸러주시려 바치오신 로고는 또 그 얼마였던가.

지금도 귀 기울이면 보통문 가까이에 멋들어지게 일떠선 만수대거리의 살림집을 찾으시어 친어버이의 따뜻한 정을 기울여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다심하신 음성이 들려오는것만 같고 인민들에게 불편을 주던 낡은 거리를 통째로 들어내고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을 창랑거리로 현대적으로 일떠세워 주시고 못내 만족해하시던 그이의 환하신 영상이 눈앞

에 어려와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다.

풍치아름다운 보통강반에 어울리게 특색있는 건축형식을 자랑하는 창랑원과 청류관, 빙상관을 비롯한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에도 격정없이 대할수 없는 가슴뜨거운 사연들이 깃들여 있다.

현대적인 위생문화편의종합기지인 창랑원을 일떠세워 주시고 우리 인민들이 리용할 목욕탕과 수영장, 물놀이장에는 1%의 목욕물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100% 뽑고 100% 새로 넣는 원칙에서 물을 보강할수 있게 대동강물을 끌어들이도록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주신분도, 새로 건설된 보통강상점을 찾으시어 봉사자들에게 과일들과 고기가공제품들을 넉넉히 마련하여주시던 수도시민들에게 팔아주어 수도의 거리가 언제나 과일향기 넘치는 거리,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치는 거리로 흥성이게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던 위대한 장군님 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이 땅에 창조와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쳐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지난 해에 보통강반에는 천하절경의 구슬다락 경루동이 솟아올라 세인의 부러움을 자아내고 있다.

황홀한 광채를 내뿜는 경루동의 창가마대에서는 인민들이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오고있으니 누구든 조선의 참모습을 보려면 평양을 보고 평양의 진모습을 보려면 보통문에 와서 경루동을 보라!

여로부터 평양의 절승경계를 두고 평양강경으로 일러 왔다.

산과 강이 만나는 경치아름다운 곳에 세워진 보통문에서 해가 뜰 때나 질 때 바라보는 풍경이 하도 장관이어서 《우양관》이라고도 불리워오는 보통문이다.

허나 아무리 뛰어난 경치를 자랑한다고 한들 거기에 근모하는 인민의 모습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으랴. 실사 있다고 해도 과거에는 것들리고 천대받고 물란리를 겪는 인민들의 비참한 모습뿐이었다.

그러한 인민이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문화가에서 꿈만 같은 행복을 누려가고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로동당시대의 명 풍경이 아니겠는가.

하기에 고색창연 보통문은 이렇게 소리높이 걱정을 터치는 듯실다.

한 옛날부터 보통문밖 나루터에서 길손을 바래우는 목가적인 풍경은 평양 8경의 하나로 일러왔지만 로동당시대의 오늘날 보통문에서 바라보는 천지개벽의 새 모습이야말로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평양의 제일경이라고!

본사기자 홍범식



함께 웃고웃으며 사는 화목한 대가정

덕과 정으로 아름다운 생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신 공화국에서는 서로 돕고 위해하는 이 나라 인민특유의 미덕과 미풍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무수히 꽃피고 있다.

풍흥이가 받은 기념품

형제산구역 서포3동에서 살고있는 장일홍의 가정은 아들인 장풍흥이로 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지난해 5월 최대비상방역 기간에 인민군공들의 위해 해 고고성을 락한 통용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하며 진정을 바치고 있다.

그러던 얼마전 낮모를 사람들이 장일홍의 집문을 두드렸다. 그들은 《신령군 읍에서 통용이의 큰어머니가 보낸것입니다.》라고 하며 지합 한계를 내놓았다. 갖가지

아동옷들과 놀이감들이 들어있는 지합에는 박영옥이라는 이름이 써여있었다.

장일홍과 그의 안해는 의아함을 금할수 없었다. 친척들이 선물한 사연을 설명하였다. 사업상용무로 신령군에 갔던 자기들이 평양으로 떠나려는데 한 녀인이 다급히 달려왔다고 한다. 그 녀인은 통용이를 아는가고, 그예를 위해 기념품을 준비했

고마운 청년

못하는 박경희녀성에게 지나간 날같이 감동깊이 돌아왔다. 나랑구역 전진동에서 살고있는 박경희녀성이 그 청년과 인연 맺은것은 몇해전이었다. 그날 무거운 손집을 들고가는 박경희녀성을 도와주던 청년은 그가 영예군인의 안해라 하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청년은 수시로 영예군인의 가정을 찾아와 진정을 바치었다. 늘 친자처럼 살뜰한 정

네네 좀 가져다줄수 없겠는가고 부탁하였다고 한다.

자초지종을 들은 장일홍과 그의 안해가 감동을 금치 못하며 고맙다고 거듭 인사를 하자 손님들은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인사야 신령군의 그 녀인에게 해야지요.》

그리고는 성의뿐이라며 자기들이 준비해온 여러가지 기념품을 안겨주고 돌아갔다. 그날 장일홍은 아들들 품에 안고 속삭이였다. 어서 커서 사회주의 우리 집을 지키고 빛내이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한 광부의 소생을 위하여

얼마전 상봉광산병원으로 한 구급환자가 실려왔다. 환자는 큰배아경의 한 광부였다.

당시 그의 상태는 매우 위급하였다. 환자를 진찰하는 의뢰 일꾼들의 얼굴빛은 어두웠다. 그러나 그들의 손을 꼭 잡으며 경의 일꾼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의사선생님들을 믿습니다.》

《우리 동지를 부탁합니다.》

진정에 넘친 목소리는 의뢰 일꾼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그들은 즉시 긴급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치료대책을 세

원배아경의 일꾼들, 몸보신에 좋은 여러가지 영양식품과 보약재를 가지고 찾아와 병문안을 해주던 광부들...

집단의 뜨거운 사랑과 보건의 일꾼들의 정성에 의하여 사경에 처하였던 광부는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 다시 일터에 나가게 되었다.

그가 제발로 걸어 광산에 도착한 날 온 경이 떨쳐나갔었다. 기쁨속에 울고 웃는 광부들의 모습을 격정속에 바라보는 그의 가슴속에서는 고마운 제도, 고마운 집단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칠 맹세가 더욱 굳어졌다.

본사기자

계절이란 한해를 절기에 따라 구분하여 표현하는 말인 동시에 매해 되풀이하여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나 때를 이르는 어휘이기도 하다.

여로부터 맑은 아침의 나라로 불려왔던 우리 나라에는 자연환경의 대조변화가 뚜렷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이 있다. 그런가 하면 푸르른 나무잎이 색을 바꾸는 아름다운 가을풍경을 두고 단풍계절이라고 이르는것을 비롯하여 영농계절, 수확계절 등 우리 인민들의 생활과 감정정서와 련된 계절이름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얼마전에 나는 퇴근길에서 우연히 들었던 계절과 관련된 말을 두고 깊은 생각을 해본적이 있었다.

불빛밝은 거리를 따라 집으로 가던 나는 앞서가는 처녀들이 주고받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화성거리에 이사한 경희네 집에 가보니 정말 멋있더구나.》

《그래, 지난해 영순이가 입사한 송화거리의 집도 희한했네...》

《부러워하긴, 매년도 새집들이계절엔 온정이 너도 서포지구의 새집으로 이사하게 될지 알겠니. 호호호!》

가랑잎 줄러가는 소리에도 웃는다는 한창나이의 처녀들이라 까르르 웃음발을 남기고 사라졌지만 나의 뇌리에 왜서인지 그들이 한 말이 계속 맴돌았다.

새집들이계절! 어딘가 생소한것같지만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경루동과 송화거리로, 올해에는 화성거리와 대평지구로, 매년에는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과 서포지구의 새 거리로...

뜻깊은 태양절을 맞은 화창한 4월에 새 거리 준공식에 이어 새집들이행렬이 수도의 거리를 누비는것을 목격하는것이 이제는 하나의 관

례로, 풍경으로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새집들이계절이라는 말이 나온것도 타당하고 사람들의 생활에 관습으로 굳어져가는것도 옹당할것이 아니겠는가.

순간 나는 가슴이 찢어질듯 해오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수업 계절에 대한 생각

아직은 나라가 부족한것이 많고 난관도 적지 않아 한편의 자금이 귀중할 이때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안겨줄 살림집건설이 제일 선차적인 국가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여기에 더해 국가자금과 로력, 설비가 우선적으로, 아낌없이 돌려지고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지금도 세상사람들의 놀라움과 경적을 자아내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가슴에 뜨겁게 마쳐오는것은 우리 나라를 세계에서 집문제가 가장 먼저, 가장 높은 수준에서 해결된 나라로 만드려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바쳐가시는 불같은 위민헌신의 로고이다.

인민의 리상거리들의 형성안으로부터 아바트들의 건축형식과 집구조까지 세심히 마음쓰시며 사회주의선경리답게 최상의 수준으로 완성해주시고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우리 원수님.

건축이래 대동관이라고 할수 있는 최대비상방역전의 나날에도 인민들과 한 약속은 어길수 없다시며 살림집건설을 중단없이 내일도록 해주신분도, 이미 시작된 새거리가 완공되기도 전에 이어 새 주택지구건설착공에 진입하도록 하시며 여러개의 거리건설을 동시에 령적으로 내일도록 하시어 우리 당의 속원사업이 그 전례를 모르는 폭과 심도에서 끊임없이 즐거차게 이어지도록

해주시는분도 경애하는 원수님 이시다.

이처럼 숭고하고 열화같은 우리 원수님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내 나라에는 그 어느 사전에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새집들이계절이라는 말도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새집들이경사를 맞

우리 공화국의 가슴벅찬 현실, 우리 인민의 가식없는 진심의 목소리들을 한사코 외면하고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의 역적배당들은 판에 박은 비방날조와 악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아무리 도박선전에 환장이 되었기로서니 세상사람들이 한결같이 공인하고 찬란해마

수업 계절에 대한 생각

이제는 나라가 부족한것이 많고 난관도 적지 않아 한편의 자금이 귀중할 이때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안겨줄 살림집건설이 제일 선차적인 국가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여기에 더해 국가자금과 로력, 설비가 우선적으로, 아낌없이 돌려지고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지금도 세상사람들의 놀라움과 경적을 자아내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가슴에 뜨겁게 마쳐오는것은 우리 나라를 세계에서 집문제가 가장 먼저, 가장 높은 수준에서 해결된 나라로 만드려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바쳐가시는 불같은 위민헌신의 로고이다.

인민의 리상거리들의 형성안으로부터 아바트들의 건축형식과 집구조까지 세심히 마음쓰시며 사회주의선경리답게 최상의 수준으로 완성해주시고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우리 원수님.

건축이래 대동관이라고 할수 있는 최대비상방역전의 나날에도 인민들과 한 약속은 어길수 없다시며 살림집건설을 중단없이 내일도록 해주신분도, 이미 시작된 새거리가 완공되기도 전에 이어 새 주택지구건설착공에 진입하도록 하시며 여러개의 거리건설을 동시에 령적으로 내일도록 하시어 우리 당의 속원사업이 그 전례를 모르는 폭과 심도에서 끊임없이 즐거차게 이어지도록

지함들로 만든 집 아닌 집들에서 비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날로 격화되는 경제위기와 사회적불평등 그리고 통치배들의 반인민적 악정으로 민생은 파국의 심연속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하기에 남조선의 근로대중에게 있어서 일년 열두달은 불행과 고통, 절망의 계절로 되고있고 생존의 권리, 민주주의적권리를 요구하는 각계층의 항의시위와 집회가 매일과 같이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철저히 구현되고있는 공화국에서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 들어본적도 없는 새집들이계절이 펼쳐지는 등 온 한해가 행복의 계절, 기쁨의 계절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 위대한 어버이의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의 생활속에 다가온 이 행복의 계절들이야말로 인민의 세상인 우리 공화국의 아름다운 풍경이다.

나는 확신한다. 끝없이 강성번영할 공화국의 력사와 더불어 우리 인민의 생활속에 있는 새집들이계절과 같이 이 세상 누구도 누려볼수 없는 주제조선특유의 행복의 계절, 기쁨의 계절들이 더 많이, 더 뜨겁게 깃들 것이다.

정성남

